

전주의 큰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2024년 한해 전주시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고, 더 큰 전주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준비한 대변혁의 청사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방시대 3대 특구와 3,957억 규모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등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써왔다.

▲해묵은 난제 해결로, 100만 광역도시 기반 마련

대표적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전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다.

전주종합항공기장의 경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최종 관문을 넘어섰으며, 지난 11월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돌입해 내년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도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한 오랜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업에 대해 전주시의 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구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팔복동 공업지구 내 구제를 완화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공인 주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폐지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함께 총 13차에 걸쳐 28개의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광역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왔으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활용으로 2조 1,885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며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갈 동력을 갖추기도 했다.

여기에 사는 10년 넘게 폐교로 방치되던 금안고 일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던 공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강한 경제를 위한 혁신동력 마련

동시에 시는 올 한해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이자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특히 시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공모에 선정돼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지난 10월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둥이 문을 열면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일掃 無餘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전주에서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 경제인들에게 전주의 잠재력을 알렸으며,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주 한마당드림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 규모 1,7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다. 지난 6월에는 경영 안정을 보다 강화해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한마당드림 안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지역성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 첫날 출시된 전주형 택시호출앱 '전주사랑콜'은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최근 한 달 기준 일평균 5,500여건의 호출건을 기록하며 부 순항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한옥마을·만성지구 주차터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진 장동에는 최근 260여 면의 주차면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가 조성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전주, 국내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우뚛'

시는 또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방대한 유무형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도 굳건히 했다.

특히 시는 지난 9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돼 후백제 왕도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전주 고도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유적과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도 박차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역사복합문화공간인 파랑새관을 개관하며 근대 역사를 아우르는 역사관광도시로 나아가갈 동력을 마련했다.

동시에 시는 '전주시 2034 영화영상산업 비
전'을 마련해 영화영상 촬영에서 기획·제작·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장기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국
로별 영화촬영 거점 조성을 위해 뉴질랜드 큐
피윙을 스푸디가 법인설립을 완료했으며, 최
근에는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성지가 될 독립
영화의 집 건립공사를 돌리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그간 한옥마을에 집
중된 관광산업에 도시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
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휴
식공간 모작산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장과
놀이시설을 확충해 서부권 관광 랜드마크로
재창조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덕진공원 연
호정도서관과 벽진폭포 일원에는 야간 미디어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각 권역별로 대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전주종합경기장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시화 등
해묵은 난제 해결 힘써... 100만 광역도시 기반 마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선정되는 등
강한 경제 ·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여건 마련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사업 선정 · 영화영상 비전 등
유무형 문화자산 기반 역사문화도시 입지도 굳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복지안전망 구축에 공 들여



아울러 시는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착수하며 기존 월드컵경기장에 드론스포츠복합센터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포괄하는 북부권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팝나무 명소 팔복동 철길 개량 △미래문화축제 팔복 개최 △5개 주요 축제를 통합한 전주페스타 2024 개최 △이중호수 수변탐방로 개통 등 특화 관광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축해 관광도시로 나아가길 기반을 마련했다.

▲ 촘촘해진 복지안전망, 시민 체감도 높였다
끝으로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
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공을 들여
왔다.

올해 신설된 전주형 복지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전주시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누구라 라면을 기부하고 먹고 갈 수 있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① 2024 전주페스티벌 개막 ② 대한방직 조감도 ③ 전시컨벤션센터 투시도 ④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조감도 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조감도 ⑥ 교육발전특구사업 협약식 ⑦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사업 방향 설명 ⑧ 산소융복합 기술발전특구 콘퍼런스 ⑨ 전주혁신창업 허브 개관식 ⑩ 전주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착공 ⑪ 전주함께라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아프면 쉴 권리
‘싱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재능봉사로
복지자원의 틀을 만드는 ‘재봉틀사업’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
가고 있다.

이외에도 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회용품 없는 날(매월 10일) 지정 및 홍보 캠페인 실시 △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사업 추진 △전주주예스타 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 △전주그린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와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서었다.

우름기 진주시장은 “전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면서 “2025년 새해에도 전주시민들의 힘을 믿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전주 대변의의 감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국희 기자